

### 함께해요 이웃사랑

## “필요한 만큼 가져가고 사랑한 만큼 채워주세요”

장흥 안양면 ‘사랑나눔 쌀독’ 이웃들 자율 복지 큰 호응

장흥군 안양면 행정복지센터 앞에 웅기가 하나 있다. ‘365일 마르지 않는 사랑나눔 쌀독’이다. <사진> 100% 주민들의 기부로 운영되는 이 쌀독은 평범한 이웃들의 자발적인 나눔을 통해 특별한 마음을 전한다. ‘생활이 어려운 분은 필요한 만큼 가져가고, 여유있는 분은 사랑하는 만큼 채워주세요’ 안양면 만의 자율복지 시스템이다. 지난해 한 해 동안 1880kg의 쌀이 기부돼 100여명의 주민과 37개 마을경

로당에 전달됐다. 안양면에서는 ‘사랑나눔 쌀독’ 활성화를 위해 어려운 주민들이 마음의 부담 없이 쌀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동고동락 데스크’를 마련했다. 동고동락 데스크는 기부된 쌀을 소포장해 비치하는 등 다양한 기부물품을 함께 나누는 정감어린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송남신 안양면장은 “안양면은 365일 마르지 않는 ‘사랑나눔 쌀독’을 통한 이웃사랑으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으로 오랫동안 행복한 안양면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 “불러만 주세요, 만능수리 ‘맥가이버’입니다”

영암군 저소득층 이동서비스 방충망·전구 교체 등 해결

영암군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만능수리 이동서비스 사업’을 펼친다. 영암군은 독거노인·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방충망, 전구·스위치·수도꼭지 교체 및 청소·방역 등 가구당 10만원 이내 소소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능수리 이동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독거노인 증가로 전구·스위치 등 간단한 교체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에 착안해 영암군이 개발한 차별화된 특수시책이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 복지 사업으로 짚어진 방충망이나 전등, 스위치 교체 등 단순 생활불편에서부터 청소·방역에 이르기까지 우리 동네 맥가이버로서 활동하게 된다. 겨울에는 홀로 생활하는 가구의 노후 보일러 고장·수리 및 점검, 가스배관 교

체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선물하는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도모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복지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능수리 이동서비스는 읍·면 주민센터 및 영암지역생활센터에서 신청서를 연중 접수받고 있으며, 중위소득 80% 이내 대상자를 대상으로 마을을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

## “어르신 건강호박즙 드시고 꽃샘추위 이기세요”

강진해찬여주영농법인 1500만원 상당 기증

강진해찬여주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1일 “읍·면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 어르신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1500만원 상당의 호박즙 150박스를 강진군에 기탁했다. <사진> 이재석 강진해찬여주영농법인 대표는 “호박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면역력을 높이고 암세포 증식을 저해하며 무기질, 철, 혈액 순환, 소화 흡수가 잘되는 건강 식품”이라며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이 꽃샘추위를 건강히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호박즙을 선물했다”고 말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따뜻한 손길이 이어져 지역사회가 따뜻해지고 있다”며 “정성을 담아 호박



즙을 기증한 강진해찬여주영농법인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7년 설립한 강진해찬여주영농법인은 여주즙, 작두콩차, 호박즙 등을 생산하는 식품기업이다. 직접

재배한 여주즙과 작두콩차를 전국 하나로마트에 납품하는 등 강진 농특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i@

## 강진농산물, 신라명과 프랜차이즈 진출

브레덴코·고마미지(주) MOU 강진산 딸기·잼·청 등 가공·유통·판매 활성화 기대

강진군은 최근 프랜차이즈 브레덴코·영농조합법인 고마미지(주)와 함께 강진농산물 가공·유통·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 체결에 앞서 강진군은 지난 1월부터 신라명과 베이커리카페 브레덴코 전국 매장에 강진산 딸기, 가공품인 잼과 청을 계약·납품하고 있다. 전국 60여개 브레덴코 매장의 신메뉴에 쓰이는 딸기리플잼 및 딸기청은 농산업창업가공지원센터를 활용해 다산명작협동조합이 제조한 상품이다. 이번 협약으로 강진군과 브레덴코·고마미지는 강진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개척을 통한 농가 수익 창출과 강진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생산 및 기술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해 지속적인 상생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농산업창업가공지원센터는 지난 2015



강진군과 프랜차이즈 브레덴코, 영농법인 고마미지는 최근 강진농산물 가공·유통·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진군 제공>

년 강진군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역 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으로 건립됐다. 연면적 258㎡ 규모 지상 1층으로 국비 5억원을 포함해 총 7억원이 투입됐다. 농산물 가공 장비 36종 40대가 구비돼 분말·음료·잼 등 다양한 제품 생산이 가능한 최신 시설을 갖췄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i@

김남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강진의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생산 및 기술 지원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강진 농산물이 활용돼 국민 농업소득에도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i@

## 장흥군, 산림소득사업 264건 19억원 선정

보조금 비율 50%로 확대

장흥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임업산촌분야 심의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산림소득사업 정책심의회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은 2020년 산림소득증대사업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자 362인가를 대상으로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안건을 상정하고 사업신청자 적격여부,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 결과 산림소득증대기반조성사업 176건 6억원, 농림축산식품사업 88건 13억원 등 총 268건 19억원이 최종 선정됐다. 올해부터는 보조금 비율을 기존 40%에



장흥군은 최근 정책심의회를 열어 산림소득사업 대상자를 선정했다. <장흥군 제공>

서 50%까지 확대 지원하며 노지재배 원목 표고 활성화를 위해 지원신청자에서 우선

선정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 영암군 “기록관 전시 중요기록물 조사·수집 합니다”

영암군은 기록관 건립에 맞춰 오는 5월 30일까지 중요기록물을 조사·수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영암군 기록관은 지상 3층 규모이며, 지난해 말 착공해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7월 개관할 예정이다. 기록물은 영암 군민의 정체성 확보에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이자 지금을 살아가는 좌표다.

이번 기록물 수집은 영암의 기억과 군정 변화상이 담긴 자료를 모으는 것으로, 행정업무 뿐만 아니라 군민의 알 권리 충족, 후대에 자랑스러운 기록문화유산을 전승하고자 마련했다. 이는 보존 가치가 있는 다양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해서 영암군 중요 기록물의 훼손과 멸실을 예방하고, 향후 영암 군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

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또, 수집 기록물을 군민에게 공개해 영암군의 과거와 현재를 재조명하고 군민의 참여를 이끌어내, 특별한 사연이 있거나 역사적 의미가 담긴 기록물을 관리·전시할 계획이다. 수집 대상은 일반문서류(문서·도면·카드)를 비롯해 시청각기록물(사진·필름·테이프·비디오·음반·디스크 등), 행정기록물(관인류·견본류·상징류·기념류·상징·상패류·사무집기류) 등이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

손해보험협회

#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MERITZ 메리츠화재 |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Heungkuk 흥국화재 | 삼성화재 | 현대해상 | KB손해보험 | 동부화재 | KOREAN K | SGI서울보증 | AXA AXA | AIG | NH농협손해보험